

■ 기 고



나의 삶, 당신의 삶, 모두의 행복을 준비하는, 경남농촌공간계획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여기 두 개의 딸기가 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하나는 전통방식으로 재배되어 자연스러운 풍미를 머금었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팜에서 자라 깔끔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단순히 맛의 차이를 넘어, 부족해진 일손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스스로 선택한 '재배방식의 세대교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딸기처럼 변화의 바람은 농촌공간 전반에 더 세차게 불고 있다. '인력부족'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 농촌공간정책 또한 새로운 세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농촌 개발이 읍면소재지에 복지, 문화, 보육 등 생활SOC서비스를 조성하는 '거점육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 곳곳에 방치된 폐공장, 빈집, 운영이 어려운 노후축사 등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그 자리에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채워 넣는 '재구조화'가 핵심내용이다. 농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체험·관광·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찾아오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두 번째 스텝이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은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올해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 중인 산청군과 함양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청군은 "치유와 청정자연이 빚어낸 웰니스 산청"을 비전으로 북부재생활성화 지역은 산청읍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생활서비스 확충, 한방향노화·친환경 산업의 고도화, 산업단지 연계형 주거공간 조성, 재해지역 안전관리, 농업경관 지역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남부재생활성화지역은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을 연담화(연계발전)한 생활서비스 거점공간 조성, 스마트농업 및 딸기, 사과, 꽃감 등 특산물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지리산, 한옥마을 등 특화자원 활용한 관광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마련중이다.

함양군은 "자연의 쉼터, 지역의 쉼터, 혁신의 일터가 조화된 미래 공감터 함양"을 비전으로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은 복합형 산업기반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덕유산·남계서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생활·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남부재생활성화지역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돌봄체계 강화, 폐교를 활용한 체험·문화 거점조성, 생태체험·탐방지 연계,

복지·의료·생활서비스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의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향점은 명확하다. 생활공간은 더 쾌적하게, 일자리는 더 풍부하게, 불거리는 더 특별하게 만들어 다시 사람들이 찾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김해시 주촌면의 고질적인 축사 민원이 해결되고 있고, 함양군의 폐모텔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탈바꿈했다. 하동군 진교면에 수영장이 지어지고, 산청군 신등면에 위치한 30년 된 노후 돈사 부지는 '산청딸기 아카데미'로 변모할 예정이다.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점심을 나누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에 변화의 바람이 실려있다.

이 변화의 바람에는 18개 시군 담당자, 경상남도, 농식품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경남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민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또한 경남의 광역지원기관으로서 기분 좋은 변화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다.

내일의 경남 농촌이 오늘보다 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우리 모두의 행복을 함께 하는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